



빠르고 사용이 간편한 무선 USB 기술 제공

알티미(Artimi)는 WiMedia 무선 USB, 차세대 블루투스 및 WiNet을 지원하는 무선 가전 제품들을 위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등 무선통신분야의 응용솔루션을 주로 개발하는 팹리스업체이다.

글 | 유승목 기자(chrisyoo@chips-parts.com)



알티미의
고집적되고
사용하기 쉬
운 UWB 솔루

션은 저장장치, 디지털카메라, 캠코더, MP3 플레이어, PDA, 휴대전화 같은 고속의 데이터전송과 저전력이 요구되는 개인용 휴대기기에 적합하다. 또한 저전력, 고집적된 반도체제품들은 소비전력에 민감한 소비자나 통신 및 주변장치에 이상적이다.

알티미의 최신 제품인 A-150은 저전력, 고집적된 WiMedia MAC 컨트롤러로 디지털 스틸 카메라, 캠코더, MP3 플레이어, 휴대전화와 같은 소비전력에 민감한 포터블기와 Certified Wireless USB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WiMedia 기반의 SoC이다. 저전력, 높은 통합성의 A-150은 무선 기술의 핵심으로 최고 480Mb/s 데이터 속도 및 3~9GHz 스펙트럼의 듀얼 밴드 동작을 지원하며 시스템에 간편하게 통합되도록 RF, PHY, MAC, IO 컨트롤러 및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갖추고 있다. 또한 국제 무선 규격에 적합하고, 모바일 WiMax 및 3G/4G 애플리케이션에 완

벽한 통합이 가능하다.

알티미는 WiMedia 기반의 무선 USB 모듈을 개발하여 디지털 카메라(DSC)에 통합하여 카메라 제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무선 USB 구현이 가능한 카메라를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. 사전 통합형 레퍼런스 디자인은 OEM 및 ODM 카메라 벤더들이 기본 설계를 재구성하거나 코어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할 필요 없이 기존 플랫폼에 무선 접속 기능만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.

이 카메라는 외장형 무선 USB 동글이 아닌 임베디드 기술을 사용하여 카메라에서 PC, 프린터, 스토리지 또는 디스플레이에 사진 데이터를 고속,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. 무선 USB를 갖춘 차세대 디지털 카메라는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 없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외장형 동글에 플러그-인하여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Gbyte의 사진을 다운로드하는데 약 30초의 시간이 소요된다.

알티미의 콜린 맥나브(Colin Macnab)



콜린맥나브(Colin Macnab) CEO

CEO는 "최근 대용량의 저장장치가 내장된 개인휴대기기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장되고 다운로드하는 파일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." 고 밝히고 "알티미의 저전력, 고속 무선 USB 기술은 디지털 카메라, 캠코더, 미디어 플레이어, 모바일 단말기와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에 이상적이다. 이 기술로 소비자들은 케이블을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파일을 신속하게 다운 받을 수 있을 것"이라고 콜린 맥나브씨는 설명했다. 또한 "무선통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은 알티미의 무선솔루션의 적용이 매우 적합한 시장으로 모바일 단말기 및 휴대용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"라고 말했다.

한편 알티미는 지난 2002년 설립되어 미국 캘리포니아,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에 연구개발센터와 대만에 판매사무소를 두고 있다. C&P